

“과학과 인문학 협업에 문명의 미래 달렸다”

대담

도정일·최재천 지음

“고대 서양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두 갈래로 길이 갈린 것 같아요. 진화론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최재천 이화여대 예과과학부 석좌교수·국립생태원 원장)

“생물학이 아무리 인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해명해내도 신화가 들려주는 인간 기원의 이야기는 의미를 상실하지 않아요. 과학이 합리적으로 해명하려는 것과 신화가 상징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책읽는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상임



대표) 지난 2001년 12월 ‘신화(神話)’를 품은 인문학자’와 ‘개미를 사랑한 생물학자’가 마주 앉았다. 이후 두 학자의 만남

은 2004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인간의 기원을 둘러싼 신화와 과학의 격돌’, ‘DNA는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는가’, ‘예술과 과학, 진화인가 창조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소설인가 과학인가’ 등 10여 차례의 대담과 4차례의 인터뷰로 이어졌다.

2005년 11월 두 학자의 대화를 정리한 ‘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가 세

상에 나오자 한국사회에 ‘통섭(統攝)’과 ‘융합(融合)’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서로 관계없는 분야인 양 인문학과 과학을 구분 짓던 견고한 벽은 무너졌다. 당시 생소했던 통섭과 융합은 이제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됐다.

최근 ‘대한민국 지성사 최초의 프로젝트, 그후 10년’이라는 부제를 단 ‘대담’이 출간됐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두 세계의 깊이있는 만남을 시도한 ‘대담’의 출간 10주년 기념판이다.

기존 ‘대담’의 내용에 더해 ‘대담 그 후 10년,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특별 대담을 수록했다. 두 학자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통섭 담론을 정리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새로

운 만남은 어떤 모습일지를 가능하다.

두 학자가 10년전 대담을 통해 첫 시도한 통섭과 융합의 화두(話頭)는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부는 2018년부터 문과·이과 구분없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학생들이 인문학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 전공자 500명을 뽑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괴짜’ 발굴을 시도했다.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의 진솔한 대화는 정실홍실이 아우려져 새로운 무늬의 천을 직조(織造)한다.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 들춰 읽다 보면 두 학자의 대담 자리에 함께 앉아 경청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최재천 교수



도정일 교수

책 말미에 첨부된 ‘쟁점 찾아보기’는 과학이 인문학에, 인문학이 과학에 상호 묻고 답하는 주요 이슈를 쉽게 찾아 꼼꼼하

게 음미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한다. <휴머니스트·2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인간사 우여곡절 담은 27편의 詩話

우물에서 하늘보기

황현산 지음

산문집 ‘밤은 선생이다’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던 불문학자 황현산 선생이 신작 ‘우물에서 하늘보기’를 펴냈다. 지난 2014년 한햇동안 중앙 일간지에 ‘황현산의 우물에서 하늘보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시화(詩話)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 실린 27편의 글에는 다양한 시들이 등장한다. 황씨는 서문을 통해 시가 인간사의 우여곡절에서 영영 달아나지 않았음을 알게됐다고 했다. 시는 우리 삶과 곧바로 연결돼 있었다.

저자는 다양한 시편을 세상사와 연결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즐거웠던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다. 또 ‘동사사독’ ‘베티블루’처럼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시를 이야기하는 소재로 사용됐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들딸을 잃고 시를 썼고, 때로는 불행한 부모들을 대신해서도 시를 썼던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정치용의 ‘유리창’ 김광균의 ‘은수저’, 김현승의 ‘눈물’이 대표적이다.

백기완의 시 ‘뫼비우스’에 김종술이 곡을 부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대사에서 지극히 고통스럽고



지극히 고결한 순간에 만들고 부른 노래”고 “모든 오욕과 영광을 넘어서 우리가 슬픈 날에도 우리가 기쁜 날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밖에 윤일병 사태가 터졌을 때는 양리 마소의 ‘거대 전투’를, 백석의 시집 초판본이 화제가 됐을 때는 백석의 시 ‘사슴’을 들려준다.

또 이육사의 ‘광야’, 김수영의 ‘꽃잎’, 윤극영의 ‘반달’,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 등의 시와 묵직하고 애뜻한 삶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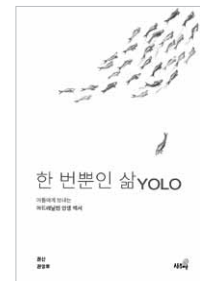
특히 ‘시인의 신화 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구성하는 삶을 산’ 시인 최승자가 등장하는 글 ‘최승자의 시인’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정신병동에서 요양을 하고, 점성술과 신비서적에 심취하고, 무언가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사생활’을 알지 못한 채 작품에만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글 말미에 실린 ‘기억하는 가’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삼인·1만3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한 번뿐인 삶 YOLO=아들에게 보내는 아드레날린 인생 배서. 한국에서 아빠는 아이들과 하루 평균 6분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러다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입영 통지서를 받아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식구를 돌아보게 된다. 무슨 이야기든 듣고 싶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빠는 군대에 간 아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미뤄 두고 말았던 이야기들을 위문편지를 통해 끄집어낸다. 웹툰보다 흥미롭고 ‘공신’보다 애뜻한 한 아빠의 성실한 기록이다. <상추쌈·1만4000원>

▲고전 멘토=질풍노도의 청소년기, 늘 불안하고 고독한 청소년들에게 고전 속 열명의 멘토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가 담긴 책. 고전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고달픈 삶의 길을 살아간 사람들의 긴 고백이다. 고전 속 주인공들은 어렵고 딱딱한 고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십대들에게 마치 친구



처럼 자신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했고 방향했다는 이야기를 건넨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힘든 순간을 이겨 내 내담게 살아가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준다. <공결·1만4800원>

▲비난 게임=조직 생활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책. 책은 독자가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던, 경력의 어느 단계에 있던 상관없이 인정과 비난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에게는 한 발 물러나서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기본적인 조언부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은 상사의 유형까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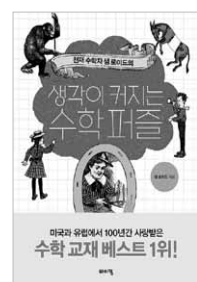


가 콘웨이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그려낸 가상역사책. 2393년 제2중화인민공화국에 사는 미래 역사가가 반암흑기(1988~2093)와 그에 이어지는 대붕괴와 대이동(2073~2093) 기간의 일을 들려준다. 300년 후 미래 역사가의 시선에서 현대 문명이 마주한 위기를 고찰한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양상과 그 원인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며 충격적인 미래를 예언한다. <갈라파고스·1만원>

▲KISTEP 미래한국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핵심 인재들이 총력을 기울여 분석하고 전망한 미래 한국보고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 10년 후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트렌드를 10가지로 엄선하여 소개했다.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사회와 충돌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위기 이후 재조명되는 제조업 등 최근 떠오르는 혁신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했다. <한스미디어·1만7000원>

어린이 책

▲문제는 타이밍이야=이제 막 사랑에 눈뜨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들과 나눴던 감성을 이야기로 묶은 단편집.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포야포 아줌마’가 당선됐던 정해은 작가는 광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이 걸로 드러내는 밝은 모습보다는 그들의 내면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실천문학사·9500원>



▲생각이 커지는 수학 퍼즐=지난 100년간 미국과 영국, 유럽 전역의 아이들이 수학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익히는 데 활용한 수학 퍼즐 교재다. 저자

샘 로이드가 남긴 수학 퍼즐 중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제만을 가려 뽑아 정리한 것으로,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안성맞춤이다. <바이킹·7900원>

▲쓰촨 뿌찌=다람쥐, 새, 거북이, 멧돼지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도토리 여행기. 깔끔하고 명확한 그림과 한 쪽에 한 문장 정도의 적은 양의 글로 구성되어 이제 막 책을 접하는 유아들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도토리와 동물들 그리고 아이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릴 땀의

모습까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림으로 담아내었다. <바람의아이들·1만2000원>

▲마법의 막대기=실루엣 아트 예술가 클레이 라이스가 검은 종이를 오려 표현한 실루엣 아트 그림책. 놀랍도록 섬세하게 종이를 오려내는 페이퍼 커팅 솜씨와 신비로운 그림자의 이미지를 활용해 그림책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한편의 예술 작품이다. 그림책을 펼치면 생명을 불어넣은 독특한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마치 한편의 그림자극을 보는 듯하다. <같이보는책·1만1000원>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이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몸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